

제자도의 표현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이신 분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3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초대와 받아들임으로써, 그분 안에서 나타난 신성한 대의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24).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나 학생”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 “보라, 참으로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요한복음 1: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뿐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 중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18,19

본문의 서두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자로서의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분명히 보여주며 매우 신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지니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며 이를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리니, 네가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 주라. 그러면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17,18). 야고보가 사용한 비유는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야고보서 2:15,16). 만약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할 행함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중 많은 것을 언급합니다. 이 기록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 또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식을 낳을 힘을 얻어,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았으며,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으며, ...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자기 유해에 대하여 명령을 내렸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4-25

이것들은 바울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낸 믿음의 표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인다. “또 무엇을 말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얻었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맹위를 꺾고, 칼날을 피하였으며, 연약함에서 강해졌고, 싸움에서 용맹해졌으며, 이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32-35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상을 주신 경우들을 통해 믿음의 행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심지어 쇠사슬과 감옥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방황하며,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땅의 굴과 동굴에서 방황했습니다.” 히브리서 11:36-38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시련과 박해를 겪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대의를 옹호하고, 그들을 둘러싼 악의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다니엘 3:1-12).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느부갓네살의 경고를 받은 후, 이 신실한 용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왕이시여,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그 금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임을 왕이 아십시오.” 다니엘 3:17,18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히브리 청년은 그들의 하나님이 불타는 용광로에서의 잔혹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 유혹에 대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가 최선이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더 나은 부활”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35

사랑은 수고합니다

사랑이 수고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니라.” (히브리서 6:10). 여기서 언급된 “사랑의 수고”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권면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찬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3:16

사랑의 수고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이끌릴 수는 있으나 강요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이기심 없음에 기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장 훌륭한 본을 봅니다. 그분의 모든 창조 행위는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구속주이자 구세주가 되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가페(agape)’는 ‘자선’으로 번역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연구자들은 ‘자선’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순수한 자선은 성경이 말하는 신성한 사랑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선은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대가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분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사랑은 베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 속에서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마음을 채우면 사랑의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타인, 특히 형제들을 위해 매일 희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찬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물었듯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17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할 다른 사랑의 수고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 시기하지 아니하며, ...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4-8).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다양한 덕목들에 완벽하게 부합할 만큼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하기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 다시 소망하리요?” (로마서 8:24).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즉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요한계시록 20:6). 우리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견뎌내야 할 시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노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음을 앎이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라.” (로마서 5:3-5)

히브리서에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인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니,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나, 만일 누구든지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36-38). 사도 야고보의 글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오심[그리스어: 임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오심[임재]이 가까웠느니라.” 야고보서 5:7,8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 수립에 관해 더욱 그러합니다. 초기 교회의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생을 마치기 전에, 그 일이 자신들의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수세기가 지나갈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너무나 소중한바, 그들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며 그 성취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를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복음을 선포함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칭찬했을 때,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활동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도의 말씀 맥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으니, 너희가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지냈는지 모르니라. 너희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로써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8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정과 신실함이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선교적 열정을 본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차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널리 퍼진 모든 곳에서도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온 땅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9; 사도행전 1:8).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이 사역이 우리 일상에서 결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형제들처럼 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랐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 자신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신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누가복음 4:43

오늘날의 동일한 시험

오늘날 우리는 초기 교회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국에 대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시대의 형제들처럼, 우리 또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며, 고난을 겪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겪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이 인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인내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 겉보기에 지연이 있다고 해서, 진리와 그 섬김에 대한 초기의 열정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박국 2:3; 히브리서 10:37).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인내심을
시험하시며, 기다림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일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같은
부지런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히브리서 6:10,11).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잠시 동안이나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시험은 좁은 길을 끝까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니, 이는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이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에 들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가서,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질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8:11-15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하는 것”은 이 위험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며,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꺾이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해야 합니다. 로마서 2:7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한 종에 관해,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일의 청지기로 삼으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21).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이신 분의

눈앞에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